

獨한 노이어, 부폰 울렸다



독일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가 2일(현지시간) 프랑스 보르도의 스타드 드 보르도에서 치러진 이탈리아와의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16) 8강전에서 선방을 펼쳐보고 있다. 오른쪽은 승부차기에서 패한 뒤 울먹이던 이탈리아 골키퍼 부폰. /연합뉴스

독일, 이와 8강전 6-5 승리

승부차기 9번만에 짜릿한 승
‘아주리 징크스’ 54년만에 깨
웨일즈, 벨기에 3-1 격파
호날두 포르투갈과 4강전



‘전차군단’ 독일이 승부차기 끝에 ‘아주리 징크스’에서 탈출하고 2016 유럽축구 선수권대회(유로 2016) 우승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했다. 독일은 3일(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보르도의 스타드 드 보르도에서 치러진 유로 2016 8강전에서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와 120분 연장 혈투 끝에 1-1로 승부를 내지 못한 뒤 승부차기에서 6-5로 극적으로 이겨 4강에 진출했다. 스페인과 함께 유로 대회 최다우승(3회)을 기록 중인 독일은 4일 치러지는 프랑스-아이슬란드 8강전 승자와 8일 오전 4시 프랑스-마르세유에서 준결승전을 치른다. 독일은 이날 승리로 그동안 메이저 대회(유로 대회·월드컵)에서 이탈리아에 철저히 유리당했던 ‘아주리 징크스’를 벗어났다.

독일은 역대 메이저 대회에서 이탈리아를 상대로 4무4패(유로 대회 2무1패·월드컵 2무3패)로 아직 한 차례 승리도 따내지 못했다가 무려 9명이 투입된 이날 승부차기에서 짜릿한 첫 승리를 거뒀다. ‘천적’ 이탈리아를 상대로 독일은 토마스 뮐러와 마리오 고메즈를 최전방 투톱으로 내세웠다. 이에 맞서 이탈리아는 ‘뫼팅수비’의 스리백(3-back) 라인인 안드레아 바르차글리-레오나르도 보누치-지오르지오 키엘리니의 ‘BBC 수비라인’을 가동했고, 중원 수비의 핵심인 다니엘 데 로시의 부상 공백을 스테파노 스투라로에게 맡겼다. 전반을 득점 없이 마친 독일은 후반들어 공세를 고삐를 바짝 잡아챘다. 후반 8분 뮐러의 슈팅이 수비수의 육탄 방어에 막힌 독일은 마침내 후반 25분 이

탈리아의 ‘뫼팅수비’를 허물었다. 이탈리아 진영 왼쪽 측면을 침투한 요나스 헤토르가 내준 패스를 외철이 페널티지역 중앙으로 쇄도하며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쏘았다. 기세가 오른 독일은 후반 23분 고메즈가 외철의 침투 패스를 받아 골지역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한게 이탈리아의 ‘거미손’ 잔루이지 부폰의 슈퍼 세이브에 막혔다. 하지만 이탈리아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이탈리아는 후반 31분 코너킥 상황에서 독일의 중앙 수비수 보야텐의 핸드볼 반칙이 나와 페널티킥을 얻었다. 공격에 가담한 이탈리아 수비수 키엘리니의 머리를 맞은 볼이 뒤에서 막던 보야텐의 손에 맞는 행운이 따랐다. 페널티킥 키퍼로 나선 레오나르도 보누치는 후반 33분 독일의 수문장 마누엘 노

이어의 템포를 뺏는 재치있는 슈팅으로 동점골을 쏘아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전후반 90분 동안 1-1로 맞선 독일과 이탈리아는 연장 승부에서도 추가 득점에 실패하며 피를 말리는 승부차기에 들어갔다. 이탈리아의 선축으로 시작된 승부차기 두 무려 9명이 투입되는 혈투가 펼쳐졌고, 결국 독일은 9번 키커 헤토르가 부폰을 뚫고 득점에 성공하며 이탈리아를 승부차기 6-5로 물리치고 4강 진출의 기쁨을 만끽했다. 독일의 수문장 노이어는 승부차기에서 두 차례 선방을 펼쳐 부폰과 ‘골키퍼 자존심 대결’에서 승리했다. /연합뉴스

오승환 ML무대 첫 세이브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박리구 무대에서 첫 세이브를 올렸다. 오승환은 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홈 경기에서 3-0으로 앞선 9회초 등판해 1이닝을 무피안타 무실점 2탈삼진으로 완벽하게 틀어막아 세이브를 챙겼다. 오승환은 마무리 트레버 로즌솔이 계속된 부진을 보이자 마무리로 ‘승격’했다. 첫 타자 조너선 투크로이를 시속 135km 슬라이더로 헛스윙 삼진으로 틀러 세운 오승환은 후속타자 크리스 카터도 슬라이더로 2루 땅볼 처리했다. 오승환은 카크 뉴엔하이스를 시속 132km 체인지업으로 헛스윙 삼진 처리하며 경기를 끝냈다. /연합뉴스

동강대 야구 2부리그 3연패

동강대가 전국대학야구대회 2부리그 3연패(連覇)를 달성, 최강자로 우뚝 섰다. 지난 2004년 창단 이후 2부리그에서 첫 3연패를 달성한 것으로, 감독상을 비롯해 최우수선수·타격상, 우수투수상 등도 휩쓸었다. 동강대(총장 김동욱)는 지난 29일 포항야구장에서 열린 ‘2016 전국대학야구 하계리그’ E조(2부리그)에서 재능대를 12대 4, 8회 콜드게임으로 꺾고 사상대 맨 위에 올라섰다. 동강대는 앞서 제주관광대, 세계사이버대, 강릉영동대의 경기에서도 잇따라 승리, 종합전적 4승 1패로 우승했다. 동강대는 2014년 하계리그 우승을 거머쥔 데 이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위업을 달성했다. 흥현우 감독은 감독상을, 외아수 김지환이 최우수 선수상, 투수 김재현은 우수투수상, 김준수는 타격상을 받았다. 장재봉 사회체육과 교수는 공로상을 받았다. /김지환기자 dok2000@

정광고 손현호 전국역도 3관왕

정광고 3학년 학생이 전국역도대회에서 3관왕에 올랐다.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손현호(정광고 3년)는 지난 28일 강원도 양구 용화체육관에서 열린 ‘제 64회 춘계남자역도경기대회’ 69kg급에 출전, 정상에 올랐다. 손현호는 이날 인상 120kg, 용상 151kg, 합계 271kg을 기록하며 3개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손현호는 2위 광태준(부산체고·합계 251kg), 3위 송병창(전남다함고·합계 245kg)의 추격을 여유롭게 따돌렸다. /김지환기자 dok2000@

149km 뱀직구 임창용 “완벽하게 고향 무대 서겠다”

6480일만에 친정팀서 공 던져

똑같은 마운드였지만 특별한 마운드였다. 6480일 만에 타이거즈 임창용이 마운드에 섰다. 전국에 많은 비가 쏟아졌던 지난 1일, 이날은 KIA의 2016시즌 73번째 경기가 예정된 날이었다. 굵은 장맛비가 계속되면서 속속 각 구장의 우천취소가 결정됐지만 정계가 풀린 임창용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복귀를 위한 준비를 했다. 이날 경기가 고척돔에서 열리는 만큼 날씨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또 김기태 감독이 등록과 함께 기용을 예고하면서 1일은 타이거즈 임창용이 돌아오는 날이었다. 문제는 임창용의 등판시점이었다. 생각보다는 일찍, 싱거운 상황에서 임창용이 마운드에 모습을 드러냈다. 믿었던 선발 지크가 장단 13안타로 8실점을 하면서 4회 마지막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기고 조기 강판됐다. 4회 0-7, 두 번째 투수가 마운드에 올랐다. 초반 일방적인 흐름에 침울하던



왕정 관중석에서 환호가 일었다.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지만, 먼길을 돌고 돌아 다시 고향팀 유니폼을 입은 임창용이 마운드에 선 것이다. 1998년 10월4일 광주 OB전에서 구원 등판했던 경기가 타이거즈 임창용의 마지막 기록, 해태에서 KIA로 OB에서 두산으로 바뀌는 등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임창용이 6480일 만에 다시 타이거즈 선수가 됐다. 2사 1루에서 김민성과 맞선 임창용이 초구를 던졌다. 김민성이 커트를 해낸 공은

145km 짜리 직구였다. 총 7개의 공을 던진 그는 풀카운트 승부 끝에 7구째 143km 직구로 헛스윙 삼진을 만들었다. 이후 5회 좌완 이준영이 마운드에 오르면서 임창용의 첫 등판은 7개의 공, 탈삼진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세 번째 직구는 149km까지 찍히면서 관중석에서는 탄성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임창용에게는 아쉬움이 남는 복귀 무대였다. 팀이 크게 지고 있는 상황, 속제를 확인한 시간이기도 했다. 임창용은 “정말 오랜 시간 끝에 친정팀에 돌아와 마운드에 오르는데 8개월 공백 이후 던지게 돼서 무척 설레고 기뻐했다. 많은 공을 던지지 않았지만 투구하는데 몸상태 밸런스 모두 나쁘지 않았다”면서도 “팀이 크게 지고 있고 주자가 있는 상황이라 팬들에게 인사도 못 드렸다”고 아쉬워했다. 몸상태 밸런스가 나쁘지는 않았다고는 했지만 스피드에 대한 욕심이 남았다. 임창용은 “한국에서는 처음이지만 일본 돛구장에서 경기를 해봤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었다. 전광판이 뒤에 있기 때문

에 공을 던지면서 스피드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그래도 중간에 150km 하나를 찍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쉽다”고 웃었다. 뱀직구를 앞세워 삼진은 만들었지만 변화구는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차근차근 경기를 해가면서 가다듬어야 할 부분이다. 임창용은 “아무래도 실전을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변화구 감이 좋지 않았다. 공을 놓는 포인트 등 경기를 하면서 감을 잡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척을 시작으로 KIA는 수원-잠실(두산)로 이어지는 원정 9연전 일전을 소화한다. 임창용이 간절하게 그리던 고향 마운드에 오르기 위해서는 며칠 더 기다려야 한다. 임창용은 “안 좋은 모습도 보였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응원해주고 좋게 봐주시면 좋겠다. 복귀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 더 준비하고 노력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고향 마운드에 서고 싶다”고 언급했다. /고척=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연타석 홈런 나지완 “치고도 욱먹었어요”

데아웃 T 특특

▲치고도 욱먹었어요 = 연타석 홈런을 치고도 웃지 못한 나지완이다. 나지완은 지난 2일 넥센 매그레거를 상대로 4회와 7회 연속해서 담장을 넘겼다. 서동욱의 투런과 김주형의 솔로포도 나왔지만 불펜진의 난조 속에 경기는 5-8패로 끝났다. 두 타석 연속 홈런을 날렸던 나지완은 8회 2사1루에서는 삼진으로 돌아섰다. 3점차의 승부였던 만큼 아쉬웠던 삼진. 나지완은 “홈런치고도 중요한 상황에서 못 쳤다고 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 타석에서 생각이 너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슬쩍 한 마디를 더한 나지완. “그래도 앞에 홈런도 중요한 상황에서 치지 않았나요?” ▲내 이야기는 했니 = 흥건희에게 서동욱은 파이팅 넘치는 고마운 선배다. 흥건희는 2일 임시선발로 나와 4이닝 2실점을 기록했다. 지난 29일 LG와의 경기에서 3이닝 퍼펙트의 피칭으로 끝내기 승을 이끈 흥건희는 3일 만에 다시 등판을 해 7개의 공을 던졌다. 아쉽게

경기경기는 5-8패로 끝났다. 더 많은 이닝을 지켜주지 못한 게 아쉬웠으며 취재진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흥건희. 마침 서동욱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내 이야기는 했니?”라고 농담을 했다. 흥건희는 이에 “분위기가 안 처지도록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해주신다. 2루수가 투수 뒤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인데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대화도 해주신다. 뒤에서 든든하게 힘이 된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투수 저장해서 오겠네 = 본격적인 장마가 찾아보면서 프로야구 주말 3연전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1일에는 고척에서만 경기가 열렸고, 사직에서 예정됐던 kt와 롯데의 경기는 한 경기도 열리지 못했다. 고척돔에서 넥센을 만난 KIA는 세 경기로 딱 채워져 치렀다. 특히 임시선발로 두 경기를 치른 만큼 마운드 출혈이 심했다. 김기태 감독은 주중에 만나는 kt의 경기가 또 우천취소됐다는 소식에 “투수 저장해서 오겠다”며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 김 감독은 임창용이 불펜에 가세한 만큼 흥건희를 고정 선발로 투입하는 등 마운드에 변화를 줄 예정이다. /고척=김여울기자 wool@